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유후, 방송·학업 병행... 적응 잘하는 것 같아 다행”

‘바이브’ 윤민수, MBC TV ‘일밤-아빠 어디가’서 아들 바보 인증

올해 TV 예능계 최고 ‘블루칩’이라던 이 꼬마 아이를 낚는 데 주저할 이가 없을 듯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천진난만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단번에 휘어잡더니, ‘냠냠’ 맛있게 먹는 모습에 광고주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여러 개의 CF까지 꿰찼다. 연예계 활동 15년 차인 그의 아버지 ‘바이브’의 윤민수(33·사진 오른쪽)도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러나 연예인을 떠나 아버지의 처지에서 어린 아들과 방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터, 윤민수는 “출연자들 모두 아이들에게 ‘아빠 어디가’ 방송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집에서는 방송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제작진도 늘 아동심리상담가와 함께 다니며 이들의 조연을 얻는다”고 아들을 위한 노력을 전했다.

MBC TV ‘일밤-아빠 어디가’의 스타 유후(7) 이야기다. 최근 만난 윤민수는 “유후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느낌”이라며 “그래도 밤에는 엄마만 찾는다”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었다. 사실 지난 1월 출발전 ‘아빠 어디가’에 시청자가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 MBC TV ‘일밤’은 한 자리대 시청률로 매주 ‘꿀찌’의 수모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어느덧 두 자리대 시청률로 경쟁 프로그램인 KBS 2TV ‘해피선데이-맘마미야’와 SBS TV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을 앞서가고 있다. “아빠 어디가” 메인 작가가 ‘나는 가수다’의 작가였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와 잠시 고민을 했죠. 평소 아이와 지낸 시간이 적는데, 마침 아이도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경쟁 프로그램이 강세라 2~3개월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웃음) 그는 “3개월 정도 아들과 여행 가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종영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유후는 방송 도중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예인을 떠나 아버지의 처지에서 어린 아들과 방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터, 윤민수는 “출연자들 모두 아이들에게 ‘아빠 어디가’ 방송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집에서는 방송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제작진도 늘 아동심리상담가와 함께 다니며 이들의 조연을 얻는다”고 아들을 위한 노력을 전했다.

그렇지만 유후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를 알아보는 또래 친구들의 눈까지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유후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다.

그는 “아이가 연예인으로 가길 원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방송이 끝날 때마다 ‘후폭풍’이 세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유후도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빠 어디가’를 통해 부자 사이가 가까워진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유후의 초등학교 운동회에 달리기 대표로까지 참석했다.

“유후의 운동회에 달리기 대표로 갔어요. 중학교 때 100m를 11초에 끊을 정도로 달리기 잘했거든요. 그런데 코너를 돌 때 옆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웃음)

그는 “유류의 기를 살려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오히려 넘어진 셈이 됐다”며 “인대가 늘어나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붕’ 떠있는 느낌이었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야 아들과 여행을 하는 게 좋지만, 아들을 위해서 방송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길고 긴 방송 인생, ‘가요무대’ 덕분이예요”

김동건 아나운서 데뷔 50년 축하 행사... 아나운서계 신기록

“한국 방송의 산 증인” 김동건 아나운서(74·사진)의 방송 인생 50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대한국아나운서클럽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최근 여의도 63빌딩에서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 인생 50년 축하연’을 개최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아나운서가 데뷔 50년을 맞는 것은 김동건 아나운서가 처음이다. 한국 방송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인 만큼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 아나운서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인 1963년 4월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TBC를 거쳐 1973년 KBS로 자리를 옮긴 그는 ‘11시에 만납시다’ ‘한국, 한국인’ 등을 진행했고,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과 국민훈장 목련장, 위암 방지대상 등을 받았다. 1993년 프리랜서를 선언했고, 현재 KBS 1

TV ‘가요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선배들에게 열망하게 교육을 받아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며 “특히 ‘가요무대’를 맡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할 수 있었다. 처음 ‘가요무대’를 맡을 때에는 내 방송 인생을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몰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손범수, 김병찬, 손정은 등 후배 아나운서들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동걸 연세대 명예교수와 정영우 아나운서클럽 고문도 축하를 했고, 가수 조영남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송자 전 연세대 총장, 박현태 전 KBS 사장, 나경원 전 국회의원, 가수 이미지, 개그맨 임하룡 등 김 아나운서와 인연이 깊은 각계 인사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horoscopes for different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dates and lucky numbers.

TV 하이라이트

감독의 하모니, 드림오케스트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KBC TV·오후 5시35분) = ‘드림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빈민가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기적처럼 변화했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서울 마천과 천안의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창단식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세상 앞에 몸을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연주하기 위해 힘찬 도전을 시작했다.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무대인 ‘희망나눔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작은 음악 재능을 나누게 됐다. 지금껏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아이들. 드림오케스트라 아이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천안 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감독의 하모니를 만나보자.

90세 화가의 장수 비결은?



장수가족 건강의 비밀(EBS TV·밤 10시45분) =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유희범씨 가족들 이곳에는 김학두(90)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 그림의 나이에도 캔버스를 칠해나가는 붓끝이 거침없고 자유분방하다. 짧은 시절 미술 선생님이었던 할아버지는 은퇴 후부터 화가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여전히 현역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학두 할아버지, 이제 쉬실 법도 하건만 시간만 났다 하면 그림 삼매경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그다. 캔버스에 한 송이씩 피어나는 꽃들, 할아버지의 기쁨은 꽃을 그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기쁨을 남들에게도 주고 싶어 그림을 그리신다고 한다. 쉬운 건 잘하고 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김학두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단티겨씨의 특별한 1박2일



러브인 아시아(KBS 1TV·오후 7시30분) = 150cm도 안 되는 아담한 체구에도 40kg이 넘는 무게를 썰기처럼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 단티겨씨. 세 아이 키우라, 살림하라, 시부모님 도와 농사 지으라 단티겨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친다. 7년 전 여행가이드 일을 하다가 베트남에 배낭여행 온 남편 김명삼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단티겨씨는 어느덧 집안의 든든한 만능녀가 됐다. 단티겨씨의 고향 마을인 라오짜이 마을에 가려면 비행기와 기차, 차를 타고 1박2일을 가야 한다. 해발 16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라오짜이 마을에는 베트남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단티겨씨가 속한 부족은 블랙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소수민족이다. 1박2일은 달려 찾아간 단티겨씨 가족은 무슨 경험을 할까.